**블랙 베이**

**브론즈 2016년 제네바 시계 그랑프리(*Grand Prix d’Horlogerie de Genève*)의 '프티트 애귀유(*Petite Aiguille*)' 수상작이자 해군 공식 시계로 사용된 TUDOR의 전통을 상징하는 블랙 베이(Black Bay) 브론즈 모델이 음영 다이얼이 적용된 슬레이트 그레이 색상으로 새롭게 출시된다.**

초컬릿 브라운 다이얼이 적용된 첫 번째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 출시 이후, TUDOR는 독특한 색상을 자랑하는 희귀한 브론즈 소재로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가고 있다.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에 기반한 새로운 색상 조합이 뛰어난 존재감을 자랑하는 이 다이버 시계의 다이얼과 베젤을 장식하고 있다. 시계의 외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하며, 모든 디테일에서 해군과 관련된 영감을 찾아볼 수 있다. 강인한 인상을 남기는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은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1를 채용해 뛰어난 성능을 자랑한다.

**'변화'하는 케이스**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의 핵심 기능은 43 mm 브론즈 케이스로, 옛 선박과 기타 다이빙 장비에 사용된 청동 소재에서 영감을 얻은 디자인이다. '살아있는' 금속이라 불리는 고성능 알루미늄 합금은 물에 잠긴 상태에서도 뛰어난 내부식성을 유지해야 하는 부품에 사용되는 해양 공학 기술의 산물로, 사용자의 습관에 따라 은은한 독특한 색상을 띠게 된다. 옛 전통에 대한 경의를 표현하면서도 탁월한 기능성을 갖춘 디자인이 돋보이는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은 케이스 전체에 새틴 브러싱 처리를 적용해 색상 형성이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바깥쪽에 더 어두운 음영이 적용된 슬레이트 그레이 다이얼, 그리고 시계 바늘과 시각 표식에 적용된 골드 악센트가 돋보이는 베젤이 시계의 디자인을 완성한다. 사용자와 함께 장기간 전 세계의 바다를 누빈 듯한 풍성한 색상이 인상적이며, 마치 바다에서의 삶에 '꼭 맞게 만들어진' 듯한 느낌을 주는 시계이다.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1**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의 심장인 *자체제작* 칼리버 MT5601은 TUDOR 시계 중 가장 넓은 33.8 mm의 직경을 자랑한다. 시간, 분, 초가 표시되며, TUDOR 자체 제작 칼리버 특유의 외관과 마감이 특징이다. 새틴 브러싱 처리된 오픈워크 로터는 샌드 블라스트 디테일이 가미되어 있으며, 지지대와 플레이트는 유광과 샌드 블라스트 처리가 번갈아가며 된 표면과 레이저로 각인된 장식을 갖추고 있다.

또한 2점 고정 시스템으로 견고해진 횡단 지지대를 통해 일정한 왕복운동이 가능한 가변 관성 밸런스를 유지함으로써 견고함과 내구성, 신뢰성을 보장하는 구조로 제작되었다. 이렇게 뛰어난 품질과 비자성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을 자랑하는 칼리버 MT5601은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공식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70시간에 달하는 파워 리저브 덕분에 금요일 저녁에 시계를 풀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착용해도 시간을 다시 맞추거나 와인딩할 필요가 없다.

**역사가 담긴 스트랩**

해군과 함께해온 브랜드의 전통을 기리기 위해, TUDOR는 시계의 역사적인 사용처를 확인하고, 이를 재해석해 최신 모델에 적용했다. 예를 들어 프랑스 해군은 TUDOR 시계를 브레슬릿이 없는 상태로 배송 받은 후 수작업 또는 기타 방식으로 자체 제작한 스트랩을 장착했다. TUDOR의 기록 보관실에서 발견된 구형 다이버 시계에는 프랑스 해군의 비상탈출용 낙하산을 재활용한 고무 밴드 소재의 스트랩이 사용되었다. 금색 실 덕분에 TUDOR 시계임을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이 스트랩은 탁월한 기능성이 돋보이며, 여기에서 영감을 얻어 제작된 것이 바로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에 적용된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자카드 직물 소재 스트랩이다. 또 다른 옵션으로 에이징 처리된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 가죽 스트랩도 준비되어 있다. 일직선 커팅으로 투박한 느낌을 살린 스트랩이다.

**블랙 베이의 정수**

블랙 베이 라인의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블랙 베이 브론즈 모델은 1950년대의 초창기 TUDOR 다이버 시계에서 영감을 받은 다이얼이 특징이다. TUDOR의 1969년 카탈로그에서 선보였으며, 시계 수집가들 사이에서 '스노우플레이크'로 알려진 각진 형태의 시계 바늘이 공통적으로 적용되었다. 또한 보호장치가 없는 와인딩 크라운은 러그 전체에 뚫린 구멍과 함께 TUDOR의 1세대 다이버 시계의 특징이다.

블랙 베이 라인은 전통적인 디자인과 현대적인 워치메이킹 기술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시계를 선보인다. 단순히 오리지널 모델을 그대로 재출시하는 대신, TUDOR 다이버 시계의 60년 역사에 담긴 워치메이킹 전통을 고스란히 담아내면서도 현대적인 매력 또한 놓치지 않은 모델이다. 네오 빈티지의 복고풍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제조 기술, 신뢰성, 내구성, 마감 품질은 오늘날의 엄격한 요건에 부합한다.

**레퍼런스 79250BA**

**케이스**

새틴 처리된 43mm 브론즈 소재 케이스

브론즈 컬러로 PVD 처리된 스틸 소재 케이스

**베젤**

브론즈 컬러의 일방향 회전 베젤(매트 슬레이트 그레이 컬러의 아노다이징 알루미늄 소재 60분 눈금 디스크 적용)

**와인딩 크라운**

브론즈 소재의 스크류 다운 와인딩 크라운, TUDOR 장미 로고 각인

**다이얼**

슬레이트 그레이, 돔 형태

**크리스탈**

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

**방수**

수심 200미터(660피트) 방수

**브레슬릿**

원형의 블랙 누버크 가죽 또는 브론즈 소재 버클이 적용된 슬레이트 그레이 패브릭 스트랩

**무브먼트**

*자체 제작* 칼리버 MT5601(COSC)

양방향 로터 시스템을 갖춘 오토매틱 와인딩 메케니컬 무브먼트

**파워 리저브**

약 70시간

**정밀도**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인증 기관(Swiss Official Chronometer Testing Institute, COSC)의

공식 인증을 획득한 스위스 크로노미터

**기능**

다이얼 중앙에 위치한 시침, 분침, 초침

시간을 맞출 때 초침이 정지하여 정확한 시간 설정 가능

**오실레이터**

가변 관성 밸런스, 스크류를 사용한 미세 조정

자기장에 반응하지 않는 실리콘 밸런스 스프링

진동수: 시간당 28,800비트(4Hz)

**총 직경**

33.8 mm

**두께**

6.5 mm

**사용된 보석 수**

25개